

신생아에게 흔한 질환 ③

매일유업 영양과학연구소

◆ 검은색 변

검은색 변은 정상적인 변은 아닙니다. 위나 장에서 출혈이 있다면 검은색 변을 볼 수 있습니다. 대장, 소장(직장)의 출혈이라면 혈변을 볼 수도 있습니다. 출혈량에 따라 검은색 변의 색깔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떠한 경우든 검은색 변, 또는 혈변을 본다면 병원을 방문토록 합니다. 이때는 변을 가지고 갑니다.

◆ 빨강고 걸쭉한 변

붉은색 설사와 함께 토하고 간헐적인 복통을 호소하면 장중첩증(장이 꼬이는 상태)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 설사

유아의 설사는 여러가지 증상을 동반합니다. 소화기 장애로서 설사를 하게 되면 심한 탈수현상과 함께 체내의 무기물과 영양이 체외로 배설됩니다. 특히 유아는 설사 중에 회복이 늦어지고 증상이 계속 되면 영양공급이 어려워져 아기의 체중이 급격히 감소됩니다. 아기가 설사를 한다고 굶거나 보리차만 먹이면 설사가 쉽게 낫지 않고 성장발달에도 큰 지장을 주므로 특수분유 선택을 고려해 봅니다. 특수분유는 급성설사를 멈추게 하고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며 소화기능 및 체중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줍니다.

◆ 황달

대부분의 아기들은 출생후 수일 내에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경미한 황달증세를 보이는데, 이는 아기의 간 기능 미숙에서 옵니다. 생후 2~4일에 시작되어 1~2주일 이상 계속되다 사라지지만, 2주 이상 계속되거나 정도가 너무 심하여 발바닥까지 노랗게 되는 증세라면 병적인 황달일 수 있습니다. 심해지면 뇌성마비 등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곧바로 병원을 찾도록 합니다.

◆ 고관절 탈구

태어날 때부터 고관절이 안팎으로 비스듬히 미끄러져 있다면 자라면서 점점 더 불안정해져 영구히 고관절 탈구가 될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초기에 치료해야 합니다. 다리 사이에 거저귀를 두 장쯤 채워 다리를 적당히 벌려주고 필요하다면 부목도 대줍니다. 수술이 필요한 아기도 있습니다. 

